

특별특간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신청접수

부안군은 기후변화·수입개방에 따른 농가경쟁력 안정 도모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이달 말까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북도 역점사업인 '실락농정'의 일환으로 올해 첫 시행 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을무, 가을배추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다.

지원면적은 가을무, 가을배추 각각 재배면적이 1000㎡ 이상~1만㎡ 이하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부안전년의송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해당 재배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읍면 농협지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안군 조영환 농업경영과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관내 농업인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대기오염측정망

측정항목 1개 추가 설치

정읍시가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 항목을 1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지금까지는 오존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5개 항목만을 측정해 왔으나 초미세먼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두 1억5천만원을 들여 노후된 5개 측정망(2005년 설치)은 새로 교체하고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신규로 설치했으며, 측정 장소도 옛 군청 옥상에서 여성문화관 옥상으로 이전했다.

시는 "시민 스스로 미세먼지 등 예보·경보 발령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대기오염측정망 정비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측정장비를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대기오염 전경관(제일고 사거리)을 통해 송출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현재 대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김영란법 시행 집중 홍보

부안군이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 홍보에 집중하는 등 공직자들의 법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1일 열리는 감사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감사 사례' 순회교육과 다음달 7일 열리는 정부 3.0 직무교육에서 김영란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오는 21일 열리는 감사원 순회교육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을 근절하려고 부안군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3.0 직무교육 통해 주요 내용을 중점 실시한다. 또 오는 10월 7일 부안군청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 3.0 직무교육에서도 김영란법 안내 동영상 상영 및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 이영훈 감사 법무팀장은 이번 교육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 등을 중점 설명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및 동영상 시청 등 법 시행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적용범위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정”

제7대 김제시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 제시

제7대 김제시의회가 하반기 의정에 재선의 내병문 의원과 부의장에 재선의 김복남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신임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의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내병문 의장은 제7대 하반기 의회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이다'라는 신념으로 어느 지방의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다양한 계층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정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위해 적극 앞장설 계획이며 지속적인 도시정장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의 특성상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장으로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모아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등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면서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통해 김제시 발전에 다짐을 하게 된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복남 부의장은 모든 정책과 의회 운영에 대해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고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이 의회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위주 의정활동을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박두기 운영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화합과 소통이 되는 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각

위원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와 투명한 의정규정에 노력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진 행정지원위원장은 시장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온주현 안전개발위원장은 의회 역할이 집행부의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하반기에 속한 안전개발위원회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하나 되는 김제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후반기 김제시의회는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 견제하고 시민을 섬기는 의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태한 교월동장이 신명 그룹-홈과 독거노인, 한부모세대 등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 전달과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했다.

김제시 교월동,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활동 펼쳐

그룹-홈·생활이 어려운 이웃 16세대에 도움 및 서비스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한)은 최근 추석을 맞아 관내 그룹-홈 및 생활이 어려운 이웃 16세대와 공무원들이 1인 1가정 결연을 맺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섰다.

특히 김태한 교월동장이 신명 그룹-홈과 독거노인, 한부모세대 등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과일, 생활용품) 전달

과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김제시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추석한마당에 참여해 격려하는 등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위문활동을 벌였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대다수의 사람

들에게는 행복한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소보다 못 한 날일 수 있다"면서 "교월동만큼은 한 분도 빠짐 없이 모두가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적극 말했다. 교월동은 명절마다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마쳐

3개 분야 3명 선정, 9월 29일 지평선축제 개막식장에서 시상

김제시는 최근 제22회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9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3개 분야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문화화장 공준원(74, 전북문화연구소), △공익장 조병두(64, 부일건설), △효열장 등이다.

김제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효열장 체육장 등 5개 부문에서 문화장 3명, 산업장 1명, 공익장 2명, 효열장 1명, 체육장

2명을 추천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9일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식장인 벽골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장 수상자 공준원씨는 벽골제사(碧骨堤社)를 발간하여 벽골제를 중요한 역사적 유적으로 부각시키고 동진농자재광조항 50년사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일제시민수탈 및 수리사의 기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 수상자 조병두씨는 출항기

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열장 수상자 조광수씨는 노환으로 무병장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직장을 명퇴하고, 본인도 불편한 몸으로 모친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써 이웃의 귀감이 되었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김제시민의 장 수상자들에게 축하드리며 김제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날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측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드렸으며 다과를 함께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성황리 행사

정읍소방서, 품안에 영양시설서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최근 추석 명절을 맞아 정읍시 장병동 소재 품안에 요양시설에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직원들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측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드렸으며 다과를 함께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원의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소화기사용법 등 심폐소

생술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여성 의용소방대 방문속 대원 등은 미용기술을 활용 어르신들의 머리를 맡맡하게 질러주고, 생활실 청소는 물론 말벗, 책 읽어드리기와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지급하였다.

심중선 방호구조조립장은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월 1회씩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복지, 나눔의 행사 제공으로 시민이 더 안전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평선 축제 야간 볼거리 풍성

김제 벽골제 야행(夜行) 마련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2016. 9. 29 ~ 10. 3/김제시 벽골제 일원) 기간 중 방문객들에게

주·야간 상설화를 위한 체류형 야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선보이게 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그간 주요 프로그램이 낮 시간대에 주로 편성·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부터는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벽골제의 한낱 열기를 식혀 줄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축제기간 중 '김제 벽골제 야행(夜行)'이 마련된다.

여기에 더해, 10월 1일에는 김제지평선축제의 야간 대표 프로그램인 '벽골제 상공 핫볼 퍼레이드'가 관광객과 시민을 비롯한 1,833명의 핫볼 축제장 전역에서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그간 주간에 치중되었던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상설화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준비하였으며, 김제지평선축제에서 가을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덕 갈대숲 등에서 새롭게 단장되며, 농경사주제관 바닥을 이용하여 벽골제 단아낭자 설화를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풀어내게 된다(야행(夜行)).

그간 축제 개·폐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해 왔던 '지평선 판타지 쇼'가 단순 불꽃놀이를 넘어 레이저를 가미한 3차원 조명기법을 도입하여 생동감에서 5일간 가을밤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야행(夜行)). 야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회망 풍등 날리기', '지평선 등불', '별자리 관측'을 마련(야행(夜行))해 야간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10월 1일에는 김제지평선축제의 야간 대표 프로그램인 '벽골제 상공 핫볼 퍼레이드'가 관광객과 시민을 비롯한 1,833명의 핫볼 축제장 전역에서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그간 주간에 치중되었던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상설화하여 색다른 볼거리를 준비하였으며, 김제지평선축제에서 가을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갈색날개매미충은 노린재목 큰날개매미충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8mm정도로 갈색을 띤다.

정읍시, 갈색날개매미충 등 공동방제

정읍시는 최근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산너벌레 등 돌발해충이 발생된 산외면 종산리와 고속도로휴게소 인근 산림에 전용 약제를 살포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노린재목 큰날개매미충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8mm정도로 갈색을 띤다. 미국산너벌레는 노린재목 선녀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5mm정도로 흰색을 띤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산너벌레 등 돌발해충이 발생된 산외면 종산리와 고속도로휴게소 인근 산림에 전용 약제를 살포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노린재목 큰날개매미충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8mm정도로 갈색을 띤다. 미국산너벌레는 노린재목 선녀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5mm정도로 흰색을 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돌발해충은 북미대륙 등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전북지역을 포함하여 다수지역에 발생하고 있다.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산너벌레는 연 1회 발생하며, 나뭇가지 속에 알로 월동하고 5월 중순경 부화하여 70~80일 후 성충으로 우화한다. 그리고 사과, 배, 단감, 고추, 단풍나무 등 농작물과 수목의 나무줄기를 흡즙하여 생육을 저해시키고, 배설물에 의해 그을림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